

佛腹藏 織物을 통하여 본 朝鮮時代의 織物 研究(Ⅱ)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박윤미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정복남

目次

I. 머리말	2. 문양에 관한 고찰
II. 佛服裝 織物の 形態와 意味	IV. 맺음말
III. 佛服裝 織物の 考察	참고문헌
1. 시대별 고찰	ABSTRACT

I. 머리말

근대 이전의 직물에 관한 실물 자료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 최근 분묘나 복장물 등에서 복식과 직물류가 계속 발견되어 지고 있어서 직물 분야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실물 자료는 문헌으로 전해내려 오는 우리 나라 직물의 역사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발표된 〈佛腹藏 織物을 통하여 본 朝鮮時代의 織物 研究 (I)〉¹⁾에 이어 경북대학교의 남권희교수가 소장하던 유물을 추가로 입수하여 실물 조사하였다. 조사한 직물은 1641년대의 것이 14점(絹絲 1점 포함), 1679년대의 것이 20점(2점의 종이류 포함), 1701년대의 것이 12점으로 총 46점으로 주로 17세기 중반 이후의 직물들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첫째, 불복장직물의 형태와 그 형태가 갖고 있는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고, 둘째 복장 직물의 조직, 밀도, 크기, 문양 등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직물의 명칭 방법은 (I)편과 동일하며, 수량이 많지는 않으나 조선시대의 직물을 연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I. 佛腹藏 織物の 形態와 意味

복장물은 불상, 불화나 불탑 등에 종교적인 상징성을 지닌 여러 가지의 물품을 넣는 것을 말하는데, 직물류도 몇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복장물이 상징성을 지닌 것이므로, 각각의 형태에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데, 복장물 중에서 직물과 관련된 것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

1) 박윤미, 정복남, 〈佛腹藏 織物을 통하여 본 朝鮮時代의 織物 研究(I)〉, 《복식》 제36호, 1998

1) 發願文(발원문)

푸른 비단에 붉은 글씨로 여러 스님, 불상을 만든 사람, 심부름한 사람, 도운 사람의 이름을 적은 것이다.

논문 (I)편에서 조사한 발원문 중에서 1431년대의 것은 靑色絹에 적힌 것이었는데, 본 논문에서 조사한 발원문은 모두 한지에 적혀 있다.³⁾

2) 黃綃幅子

황색 비단으로 만든 보자기로서, 사방 한자 다섯 치로 만든다. 이 보자기는 후령통을 싸는 데 쓰인다. 그러나 후령통의 크기에 따라 보자기의 크기가 달라지기도 한다.

3) 五色線(五色絲)

길이 10자의 오색실을 색에 따라 오보병의 입에 매고 끝을 합해 하나로 만든다. 이것을 八葉蓋의 중앙으로 꿰고 황초보자기 밖으로 나오게 하여 가로 세로로 두루 묶는다. 이 실은 총명한 지혜를 표시하고 限界의 결성을 표시하므로, 일체의 天摩가 들어가지 못한다.

4) 五輪種子(오륜종자)

五色絹로 방위에 따라 五輪形을 만들고 붉은 글씨로 각각 한 글자씩 범어로 쓴다. 또 白絹로 따로 하나의 圓輪을 만들어 五輪子를 방위에 따라 원륜 내에 붙인다. 오륜종자의 방위에 따른 형태와 색은 다음과 같다.

방위	東	南	西	北	中
색상	靑	紅	白	黑	黃
형태	사각형	삼각형	원형	반원형	원형

5) 眞心種子(진심종자)

오륜종자와 방위에 따른 색상은 같으나 형태는 차이가 있다.

방위	東	南	西	北	中
색상	靑	紅	白	黑	黃
형태	원형	원형	원형	반원형	원형

6) 五鏡(五方鏡; 오방경)

오경은 다섯 가지 佛智를 의미하는 것으로, 금이나 은으로 만들되, 한지나 형겜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오륜종자의 형태와 색을 따라서 만들어서 오보병안에 붙인다.

7) 保身呪, 化身呪(보신주, 화신주)

白絹로 원륜을 만들고 방위에 따라 범어 다섯 글자를 쓴다.

8) 五色綵幡(오색채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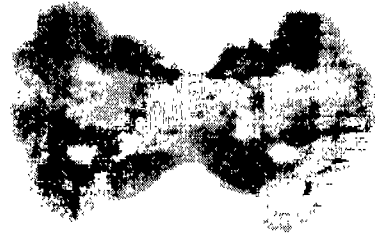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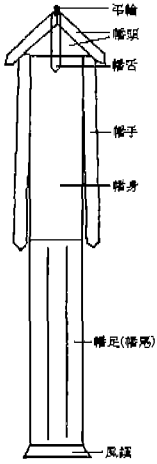
오색채번은 다섯 부처님의 몸을 표시하는 것이며, 幡(번)이란 불교에서 부처와 보살의 위덕을 나타내고 도량(道場)을 장엄, 공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깃발이다.⁴⁾ 이 번은 형태가 인간의 신체와 흡사하기 때문에 각 부분의 명칭을 인체와 마찬가지로 幡頭, 幡手, 幡身등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⁵⁾ 번의 일반적인 모양은 <그림 1>과 같으며, 재질이나 색, 크기, 용도,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복장물로 사용되는 번은 대개 직물이나 좋은 종이로 만들며 모양은 간단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 조사한 번은 幡足이 대개 3, 4, 6이며, <그림 2>는 #628 赤菊花紋織錦으로 유물에서는 대개 이러한 형태로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다.

2) 裴永東, <佛腹藏儀式的構成과意味>, 《1302年 阿彌陀佛腹藏織物の調査研究》, 온양민속박물관, 1991, pp.213-225

3) 박윤미, 정복남, 앞의 논문, p.55

4) 張忠植, “幡”, 《한국민족백과대사전》 제9권, 정신문화연구원, 1991, p494

5) 林玲愛, <古代 中國 佛教幡의 樣式變遷考>, 《美術史學研究》 189호, 1991, p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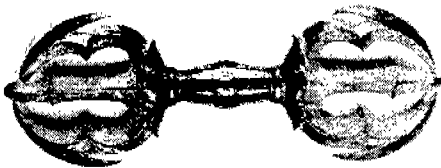


〈그림 4〉 #622 번의 유물 형태

〈그림 1〉 번의 기본구조 〈그림 2〉 #628 번의 유물 형태

9) 五帛杵

오백저는 金剛羯磨杵(금강갈마저)라고도 하는데, 금강저란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佛具이다. 금강저는 손잡이 양 끝에 예리한 칼날이 달린 방망이 모양의 무기로, 천등을 본뜬 것이라 한다. 밀교의 曼荼羅(만다라)에는 金剛部(금강부)의 여러 존상이 모두 금강저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열반경⁶⁾에는 밀적금강역사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금강저로써 모든 악마를 티끌과 같이 부수는 것으로 묘사된다. 즉, 속세의 모든 욕망을 가라앉혀주는 신성한 힘으로서 표시된다. 〈그림 3〉은 현존하는 금강저의 형태이며⁶⁾, 복장시에는 東에 靑帛杵, 南에 紅帛杵, 北에 黑帛杵, 中央에 黃帛杵를 넣는다. 〈그림 4〉는 유물에서의 금강저의 형태이다.



〈그림 3〉 승광사의 금강저 모습

10) 五傘蓋(오산개)

오산개는 오보병의 뚜껑에 해당하는 다섯 개의 덮개로서, 방위에 따라 색을 달리 한다. 오산개와 오보병의 방향색은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데, 圓融한 法門을 표시하는 것이다.

11) 五菩提樹葉(오보리수엽)

오보병 안에 넣는 다섯 가지 보리수잎을 말한다. 東에 香樹葉(향수엽), 南에 楸樹葉(추수엽), 西에 夜合樹葉(야합수엽), 北에 梧桐葉(오동엽), 中央에 聖樹葉(성수엽)을 넣는다.

흑석사의 아미타불에서 발견된 복장직물 중에 素色의 모시와 紅色의 絹으로 만들어진 오보리수엽 형태의 직물〈그림 5〉이 있다⁷⁾.



〈그림 5〉 오보리수엽의 유물 형태

6) 張忠植, “금강저”, 《한국민족백과사전》 제 10권, 정신문화연구원, 1991, p176

7) 金英淑, 《朝鮮前期의 佛腹藏織物の 理解》, 미술문화, 1997, pp.8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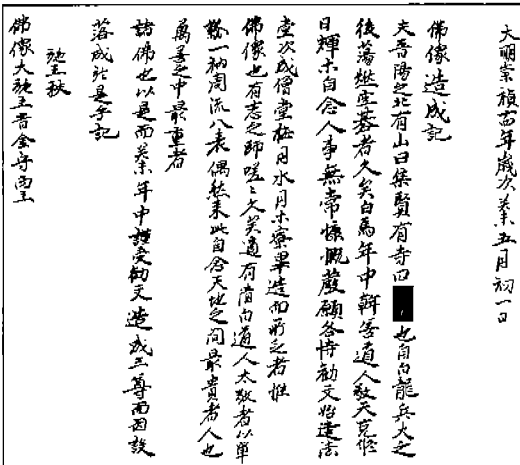
- 12)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일체여래전신사리보협진언) 白絹에 金으로 범어를 써서 넣는다.

III. 佛腹藏 織物의 考察

1. 시대별 고찰

(1) 1641년대의 직물 고찰

본 직물과 함께 복장되었던 발원문(그림 6)에 '崇禎 十四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仁祖 19年인 1641年을 뜻한다.



<그림 6> 발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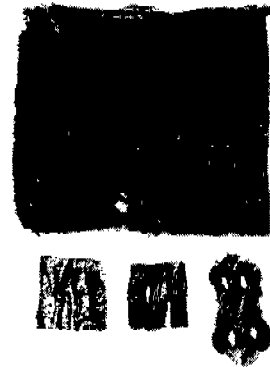
복장물 중에서 絹이 3점, 紬가 2점, 綾이 4점, 織金이 1점, 緞이 3점, 그리고 실 한뭉치를 포함하여 모두 14점이며, 직물의 재료는 모두 絹이다.

綾 중에서 #625는 바탕조직이 4매 우능(3/1)이고 무늬조직은 8매 우능(1/7)이며, #627, 632, 633은 모두 바탕조직이 3매 좌능(2/1)이고 무늬조직은 6매 좌능(1/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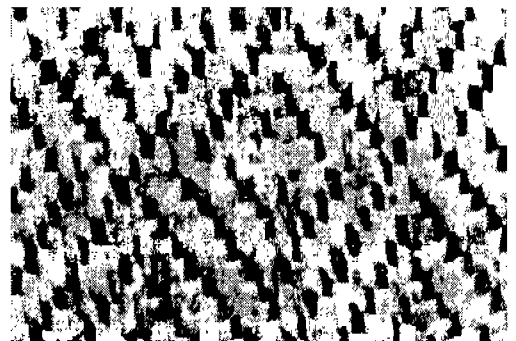
#624 黑靑紬 중에서 원형에는 범어로 목서가 되어 있다.

#626 靑碧回紋絹(그림 7)은 사각형의 왼쪽에 또 다른 직물과 함께 흠질이 되어 있고, '일궁의복○'이라는 글씨의 끝부분이 잘려있는 것으로 보아 의복 같은 것에서 오려낸 것 처럼 보인다. 또한 #626의 조직은 회자 모양의 무늬를 보이는 능직의 변화적으로 <그림 8>은 직물을 확대한 것이다. #628 赤花紋織錦<그림 2>의 바탕조직은 5매 3평의 수자직이며 무늬조직은 10매 7평으로 편금사를 사용하여 꽃 모양으로 직조하였으며, <그림 9>는 직물을 확대하여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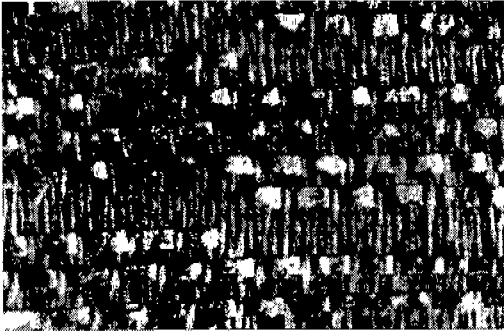
#630 赤色緞은 5매 2평의 수자직인데, 위사가 2합사로 직조되어 있다. #634<그림 10>은 赤色の 정련한 絹絲인데, 촉감이 까실까실하다.



<그림 7> #626



<그림 8> #626 확대도



<그림 9> #628 확대도



<그림 10> #634 赤色絹絲

다음 <표 1>은 1641년대의 직물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1641年대의 직물

직물번호	직물명	형태 및 수량	재료	조직	길이도 (경사×위사/cm)	규격 (가로×세로/cm)	비고
#621	黄色紬	사각형1 금강저1.번1	견	평직	27×30	18.5×19, 9×5 5.5×5	
#622	赤色絹	사각형1 금강저1	견	평직	35×31	14×21, 10×6	
#623	靑碧絹	사각형1	견	평직	50×28	18×15.5	
#624	靑靑紬	사각형1 금강저1.번2 원1	견	평직	28×27	15.5×17, 10×4 9.5×5, 8.5×5 8(직경)	
#625	黑綠雲紋綾	사각형2	견	地-4매능직 紋-8매능직	101×35	15×13	
#626	靑碧回紋絹	사각형1 금강저1.번2	견	변화직	38×35	14.5×16.5, 7×3.5 4×4.5, 3.2×4.5	
#627	黑靑小如意紋綾	사각형4 금강저3	견	地-3매능직 紋-6매능직	72×50	11.5×12	
#628	赤菊花紋織錦	번2	견	地-수자직 (5매3뿔) 紋-수자직 (10매7뿔)		3.7×3.5, 2.2×2.8	
#629	朱紅花紋緞	금강저3	견	수자직 (5매2뿔)	113×41	4.5x ×	
#630	赤色緞	번2	견	수자직 (5매2뿔)	104×44	4×4, 3.5×2	
#631	黃褐蓮花紋緞	금강저1.번2	견	수자직 (5매3뿔)	113×50	5×2.4, 3.7×2.7	
#632	褐色花紋綾	사각형1	견	地-3매능직 紋-6매능직	82×50	12.5×16	
#633	赤土色卍字花紋綾	사각형1	견	地-3매능직 紋-6매능직	47×36	17.5×12	
#634	赤色絹絲	실	견				

(2) 1679年代의 직물 고찰

한지에 적힌 발원문에 '康熙 十八年'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肅宗 5年'에 해당하는 1679년에 복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679년대의 것으로는 絹이 2점, 紬가 9점, 綾이 2점, 緞이 1점, 苧麻가 3점, 綿이 1점, 그리고 종이류가 2점으로, 총 20점이다.

#641, 642, 643은 黃色의 보자기인데, #641에는 방위를 나타내는 '南'과 범어가 붉은 색으로 적혀있고, #642, 643에는 '東, 西, 南' 과 범어 5자가 검은 색으로 적혀 있다. <그림 11>은 #642의 모습이다.

#644 黑淸色の 紬인데, 밀도가 24x28/cm이며 성글고 거칠게 짜여져 있다. <그림 12>는 #650 黑藍綿인데, 1679년대의 직물 중 #645, 647, 648, 649가 이와 같이 정사각형 1, 직사각형 1, 금강저 1, 번 2, 원형 1로 구성되어 있다.

#652 赤花紋綾의 바닥조직은 4매 좌능(1/3)이며, 무늬조직은 6매 우능(5/1)이다.

#653 黑淸花紋綾의 바닥조직은 3매 우능(1/2)이고, 무늬조직은 5매 우능(4/1)으로 직조되어 있다.



<그림 11> #642

#659는 淡黃色의 한지로 사각형 2, 금강저 1, 번 2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작은 사각형에는 붉은 색으로 범어가 적혀있다.

#660<그림 13>은 黃色의 한지로 八葉의 꽃 모양 2, 직사각형 2, 정사각형 2, 삼각형 2, 원 2로 이루어져 있다. 이 꽃모양은 八葉蓮을 의미하는 것으로, 후령통의 뚜껑 밑에 접혀져 있는 여덟 개의 꽃잎을 갖춘 종이에 해당한다.⁸⁾



<그림 12> #650



<그림 13> #660

8) 柳龍桓, <佛腹藏物の 實證의 研究>, <1302年 阿彌陀佛腹藏物の 調査研究>, 온양민속박물관, 1991, p.259

〈표 2〉는 1679년대의 직물을 정리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표 2〉 1679年대의 직물

직물번호	직물명	형태 및 수량	재료	조직	밑도 (경사×위사/ cm)	규격 (가로×세로/cm)	비고
#641	黃紬	사각형1	견	평직	27×28	38×37	보자기
#642	黃紬	사각형1	견	평직	24×24	38×37	보자기
#643	黃紬	사각형1	견	평직	25×27	38.5×38	보자기
#644	黑靑紬	사각형1	견	평직	24×28	39×45	
#645	黃紬	사각형2 금강저1,번2 원1	견	평직	25×24	16.5×16.5, 2×14.5 7×10, 8×8.5 4.5(직경)	
#646	淡黃紬	사각형2 금강저1,번2 원1	견	평직	30×38	18×20, 2×10 6×7.5, 8.5×4 3(직경)	상태불량
#647	淡黃紬	사각형2, 금강저1,번2 원1	견	평직	25×27	13×20, 2.5×14.5 4×9, 2×10, 6×8 3(직경)	상태불량
#648	黃紬	사각형2 금강저1,번2 원1	견	평직	25×17	16.5×18, 2×15.5 7.5×3, 8.5×10 5(직경)	
#649	黑靑紬	사각형2 금강저1,번2 원1	견	평직	28×35	19×21.5, 2.3×21 9×3, 7.5×10 4(직경)	
#650	黑藍綿	사각형2 금강저1,번2 원1	면	평직	17×16	15×16, 2×16 7×3.5, 2.5×9	
#651	土黃色七寶紋 緞	사각형1	견	수자직 (5매2뿔)	240×96	10.5×12.5	
#652	赤花紋綾	사각형1	견	地-3매능직 紋-6매능직	74×38	3×2	
#653	黑靑花紋綾	사각형1,번1	견	地-3매능직 紋-5매능직	40×44	5.5×4, 6×6	
#654	靑碧絹	사각형1,번1	견	평직	43×20	8×8, 3.3×5.5	
#655	黃褐色苧麻	사각형2 금강저1,번2	마	평직	16×16	10×9, 3×6 4×3.3	
#656	白色苧麻	사각형2 금강저1,번2	마	평직	19×17	10×9, 2.8×3.2 5×7.5, 3×7.5×5	
#657	赤土色絹	사각형1,번1	견	평직	30×30	10.5×7, 4×6.5	
#658	土色苧麻	금강저1,번1	마	평직	27×20	7.5×6, 4×7	
#659	淡黃色韓紙	사각형1 금강저1,번2	紙			14×13.7, 3.5×3.5 3×6, 6.5×6.3 3.5×6	
#660	黃色韓紙	꽃모양1 사각형4 삼각형2, 원2	紙			11(꽃의 직경) 11×5, 4×4 4.5(원의 직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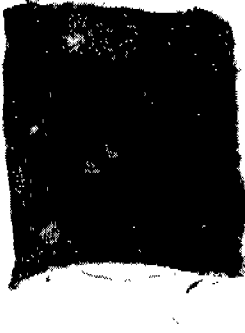
(3) 1701年代의 직물 고찰

발원문에 적힌 '康熙 四十年'은 '肅宗 27年'인 1701년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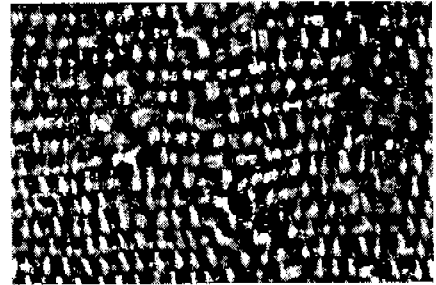
1701년대의 직물은 絹이 2점, 紬가 7점, 綺가 2점, 緞이 1점으로, 총 12점이다.

#711 黃紬는 보자기로 붉은 색으로 범어가 적혀 있는데, 후령통이 싸였던 자국 때문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715 淡黃色綺, #716 褐色綺는 바탕조직은 평직이며 무늬조직은 4매능직으로 되어 있고, <그림 14>는 #716의 모습이며 <그림 15>는 조직을 확대한 것이다.



<그림 14> #716



<그림 15> #716의 확대도

<표 3>은 1701년대의 직물을 정리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표 3> 1701년대의 직물

직물번호	직물명	형태 및 수량	재료	조직	밀도 (경사×위사/cm)	규격 (경사×위사/cm)	비고
#711	黃紬	사각형 1	견	평직	27×30	29×27	보자기
#712	黑綠緞	사각형 2 금강저1,번1	견	수자직 (5매2뿔)	117×41	5×5, 2.5×9 18×6, 6×9	
#713	黃紬	사각형2	견	평직	27×38	10×9, 1×9	
#714	黃紬	사각형1, 번2, 원1	견	평직	28×27	1×7.5, 6×3.5 3.5×5.5, 4.5(직경)	
#715	淡黃色綺	사각형1 금강저1,번2	견	地-평직 紋-4매능직	50×31	9.5×9.5, 4×2.3 3.5×4, 2×4	
#716	褐色綺	사각형1	견	地-평직 紋-4매능직	47×28	8.5×9.5	
#717	褐色紬	사각형1 금강저1 번2, 원1	견	평직	28×25	10×8, 7.5×4.5 5×8.5, 3.5×5 6(직경)	
#718	黑綠絹	사각형2 금강저1,번2	견	평직	31×28	9×8.5, 10×12.5 16×2.3 4×4, 2.5×3	
#719	靑綠紬	사각형1 번2, 원1	견	평직	23×22	8.3×7, 3×4.5 1.3×3(직경)	
#720	黃色絹	사각형2 번2	견	평직	44×20	10×11.5, 1×5 3.5×4, 2.5×3	상태불량
#721	黑藍紬	사각형2 금강저3,번2	견	평직	28×23	11×12.5, 1×9.5 4×2.5, 5×7.5 4×5.5	
#722	赤土色紬	금강저1,번2	견	평직	76×33	5.2×1.7 3.5×4, 1.5×2.8	

이상의 직물들은 조직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I)편의 직물들과 조직별로 비교해 보면 平織의 絹와 縹組織의 紗와 羅는 없었으나, 1641년대의 직물인 #626은 回字 무늬를 綾織의 변화적으로 직조한 것이다. 또한 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양이 있는 직물은 많지 않았다.

<표 4> 佛復藏 織物の 조직 및 종류별 분류

	平織				綾織			二重組織	縹子織
	絹	紬	綿	麻	綾	綺	변화직	織金	縹
1641년대	3	2			3		1	1	3
1679년대	2	9	1	3	2				1
1701년대	2	7				2			1
합계	7	18			5	2	1		5

2. 문양에 관한 고찰

문양은 한자로 표기할 때 문(文), 문(紋), 혹은 문양(文樣, 紋樣) 등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늬라 함은 보다 넓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물건의 거죽에 여러 가지 어롱진 형상이 나타난 모든 모양'이라는 뜻을 나타내며, 문양은 '여러 가지 무늬가 지닌 격식, 모양, 꼴' 등을 말한다. 문(文)은 글자(사물을 표시하는 부호)를 말하며 꾸밈(飾), 아름다움(美), 빛남(華), 아롱짐(斑:斑), 문채(文采) 등을 의미하고, 문(紋)은 색깔있는 실로 직물을 짜다거나 繡를 놓아서 이루어진 문양이라든가, 새끼, 노 따위를 엮을 때 나타나는 무늬로서 文采라 하는데 즉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문양을 뜻한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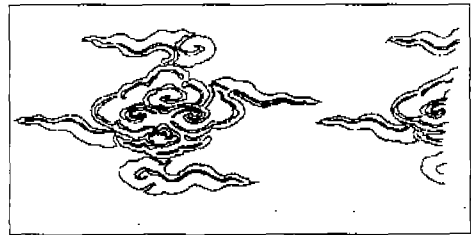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 조사한 직물 중에 몇 점이 문양이 있는데 모두가 織紋이다.

(1) 雲紋

옛사람들에게 있어 天空은 가장 숭고한 신앙의 대상이었다. 특히 동양사람은 천공을 최고의 이상향으로 생각해 왔으며 이에 따라 자연신에 대한畏敬의 관념도 생겨나게 되었다.¹⁰⁾ 지상에 번이를 일으키는 위대한 위력을 지닌 천공, 망망하고 신비스러운 하늘 세계에 대한 崇敬하는 마음으로부터 객관적인 神格이 인정되고 그 이치를 터득하게 이르렀다.

구름을 비롯하여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은 도에 의해 공간과 시간이 없는 무궁한 경지에 있다고 생각해 왔다. 옛 기록에는 구름의 형상은 수레의 역할도 하고 또 구름다리도 되어 仙人들의 음양을 부리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625 黑綠雲紋綾(그림 16)은 雲紋이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雲頭는 여의문의 형태를 보여주는 寶雲紋이며, 雲尾 부분은 卍字의 형태로 흐르고 있다. 이 운문은 가로로 길게 문양이 이어지고 있는데 <佛腹藏 織物을 통하여 본 朝鮮時代 織物 研究(I)>의 논문에 발표한 1431년대와 1735년대의 운문과 비슷한 모습이며, 전체적인 형태가 1431년대와 1735년대의 중간 형태처럼 1431년대의 것에 비해 가로로 가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¹²⁾



<그림 16> #625 雲紋

(2) 如意紋

如意란 모든 것이 뜻과 같이 된다는 의미를 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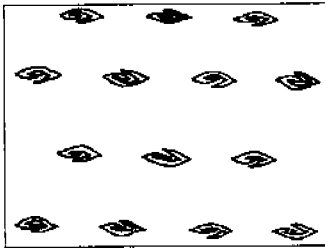
9) 《한국의 문화유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7, p.265

10) 김석하, 《한국문학의 낙원사상연구》, 일신사, 1973

11) 안상수, 《구름무늬》, 한국전통문양집 4권, 안그라픽스, 1995, p.8

12) 박윤미, 정복남, 앞의 논문, pp. 68-69

고 있는데 불교 전래 시에 인도로부터 유입된 것이라 한다. 여의의 형태는 道家가 흥성할 당시 영지(靈芝), 서운(瑞雲) 등 상징적인 사물에서 그 형태를 본 뜬 것인데, 吉祥과 축송(祝頌)에 쓰이는 물건이라는 뜻이다.¹³⁾ #627 黑靑小如意紋綾(그림 17)은, 작은 여의문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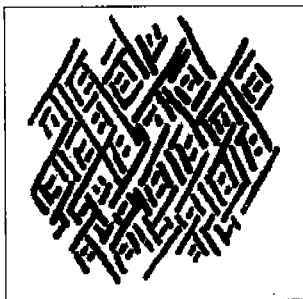
〈그림 17〉 #627 小如意紋

(3) 幾何學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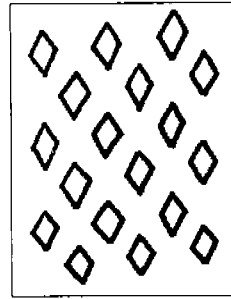
기하학적 문양들은 인류가 창안한 가장 오랜 장식 意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약간의 형태적인 차이는 있을지라도 세계 각처의 문화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쓰여졌다¹⁴⁾.

#626 靑碧回紋縐(그림 18)은 '回'자가 마름모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715 淡黃色綺(그림 19), #716 褐色綺는 작은 마름모가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대각선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림 18〉 #626 回紋



〈그림 19〉 #715 回紋

(4) 花草紋

#628 赤菊花紋織錦(그림 20)은 작은 변 형태의 직물인데 크기가 작고 문양이 완전하게 나타나있지는 않지만 국화문의 모습이 보인다. 국화는 老莊의 사상에 의하여 신선의 草花라 일컬어졌다. 「抱朴子」의 內篇 기록에 의하면, 甘谷水에는 국화의 물이 떨어져 滋液이 되어 있어 이 물을 마시면 長壽할 수 있다고 한다¹⁵⁾.

#631 黃褐蓮花紋織(그림 21)은 작은 금강저 형태의 직물로 문양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연밭이 있는 연꽃과 함께 당초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연꽃이 인류에게 천화로서 또 생명의 꽃으로 숭앙되어 온 것은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흙탕물에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하며, 또 연꽃이 필 때부터 연밭이 생기며 다른 꽃에 비해 수명이 길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¹⁶⁾

연꽃은 불교에서는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문양인데, 《무량수경(無量壽經)》에서는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은 연화 속에서 化生하는 것을 뜻하며, 《아미타경(阿彌陀經)》에서는 극락의 장엄이 연꽃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극락정토는 연꽃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다고 한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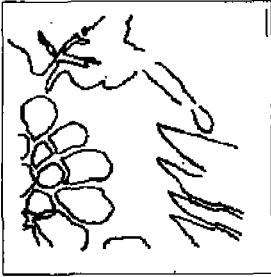
13) 林永周, 《傳統紋樣資料集》, 미진사, 1986, p.57

14) 林永周, 앞의 책,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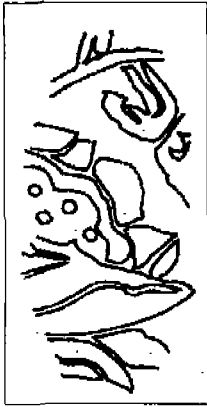
15) 黃復根, 《韓國紋樣史》, 열화당, 1994, p.133

16) 안상수, 《연꽃무늬》, 한국전통문양집 6권, 안그라픽스, 1994,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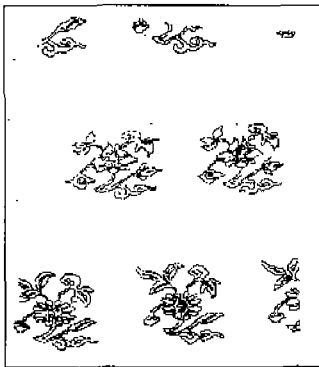
#632 褐色花紋緞<그림 22>은 난초와 국화가 위, 아래의 여백을 두고 가로로 길게 이어져서 표현되고 있다.



<그림 20> #628 菊花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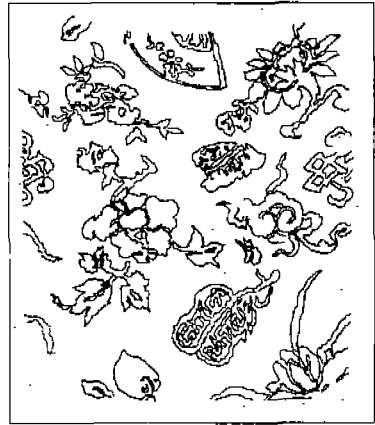
<그림 21> #631 蓮花紋



<그림 22> #632 花紋

(5) 七寶紋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사대부 등 상류 사회에서 吉利를 추구하는 요소들을 상징물로 하여, 각종 기물이나 집 안 곳곳에 장식하거나 새겨 놓았다. 그 무늬는 대개 자손들에게 기쁜 일이 많이 생기고, 풍요롭게 오래 살며, 항상 만사가 여의 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¹⁷⁾ #651 土黃色七寶紋緞<그림 23>은 칠보문 중에서 선자(扇子), 寶雲, 방승(方勝), 扇 등의 문양이 보인다.



<그림 23> #651 七寶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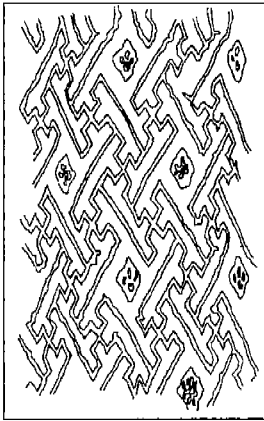
(6) 卍字紋

'卍' 자가 우리 나라에서 쓰인 것은 신라시대 부터이며, 그것을 많이 사용하였던 전성기는 崇佛政策을 썼던 고려시대다. '卍' 자의 字解는 '吉祥壽福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吉祥萬福을 불러온다는 뜻에서 '卍' 자를 길게 연결하여 문양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¹⁹⁾ #633 赤土色卍字花紋緞<그림 24>은 '卍' 자가 길게 이어지는 사이사이의 여백에 꽃무늬가 배치되어 있다.

17) 林永周, 앞의 책, p.41

18) 《한국문양》,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p.35

19) 黃涇根, 앞의 책, p.277



〈그림 24〉 #633 卍字花紋

IV.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17세기 조선시대의 佛腹藏 織物을 실물 조사하였는데 대략 정리를 하던 다음과 같다.

- 1) 직물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絹이 7점, 紬가 18점, 綾이 6점, 織金이 1점, 緞이 5점, 麻 3점, 縮 1점, 絹絲 1점, 종이류가 2점으로 紬가 가장 많았다. 직물을 조직별로 (I)편과 비교해 보면, 平織의 絹와 撚組織인 紗와 羅는 없었는데, 1641년대의 직물인 #626은 능직의 변화적이었다.
- 2) 조사한 직물의 폭은 38cm, 38.5cm로서 지금까지 조사한 다른 직물들과 비슷한 치수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조선시대에는 직물의 폭이 좁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직물의 대부분이 紬이기 때문에 문양이 있는 직물이 많지 않았다. 문양은 모두가 織紋이며, 雲紋, 如惹紋, 回紋, 菊花紋, 蓮花紋, 草花紋, 七寶紋, 卍字花紋 등이 있고, 대개가 복합문이다.
- 4) 腹藏物은 그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그 안에 넣어진 직물들도 아무리 작을 크기라 할 지라도 모든 형태는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 김석하, 《한국문학의 낙원사상연구》, 일신사, 1973
- 金英淑, 《朝鮮前期의 佛腹藏織物의 理解》, 미술문화, 1997
- 박윤미, 정복남, 〈佛腹藏 織物을 통하여 본 朝鮮時代의 織物 研究(I)〉, 《복식》 제36호, 1998
- 裴永東, 〈佛腹藏儀式의 構成과 意味〉 《1302年 阿彌陀佛腹藏織物의 調査研究》, 온양민속 박물관, 1991
- 안상수, 《구름무늬》, 한국전통문양집 4권, 안그래픽스, 1995
- ———, 《연꽃무늬》, 한국전통문양집 6권, 안그래픽스, 1994
- 柳龍桓, 〈佛腹藏物의 實證的 研究〉, 《1302年 阿彌陀佛腹藏物의 調査研究》, 온양민속박물관, 1991
- 林玲愛, 〈古代 中國 佛教幡의 樣式變遷考〉, 美術史學研究》 189호, 1991
- 林永周, 《傳統紋樣資料集》, 미진사, 1986
- 黃沔根, 《韓國紋樣史》, 열화당, 1994
- 《한국문양》,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 《한국민족백과대사전》 제9권, 제10권, 정신문화연구원, 1991
- 《한국의 문화유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7

ABSTRACT

A Study on the Chosun Dynasty's Fabrics Found in the Buddhist Statues(II)

The object of this thesis is to find out the Chosun Dynasty's Fabrics of 17th century which founded in the buddhist statutes. The total 43

pieces of fabrics can be classified chronologically as follows: 14 pieces in the year of 1641, 18 pieces of 1679, and 12 pieces of 1701. These fabrics also categorized by the weaving method as follows: 25 plain weaved, 8 twill weaved, and 5 pieces of satine weaved. I could confirmed the width of

fabrics are 38cm and 38.5cm through these fabrics. Because of the fabrics were composed of mainly plain weaved silk Chu(紬). There weren't many fabrics with motif. The fabrics within the buddhist statues have their own meaning.